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3, pp.1-42
<https://doi.org/10.29212/mh.2019..11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 본 북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 -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

이홍석*

1. 서론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3. 북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
4. 결론

1. 서론

북한은 당국가체제이다. 당은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기관은 집행을 한다. 국가조직은 당정군 체계이며, 당은 조선노동당으로 정치사상을, 정은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으로 입법과 경제를, 군은 조선인민

*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육군 대령

군으로 군사부문을 책임진다.¹⁾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에서 수령은 당정군 위에 군림하는 최고수위로 격상됐다. 따라서 당은 수령의 당이며, 국가기관도 수령의 정책을 집행하는 수령의 국가기관이다. 그러므로 당의 군대인 인민군도 수령의 군대로서 수령을 결사옹위 하는 것을 최대사명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역사적 맥락으로 간주하고 세습의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백두혈통의 뿌리를 항일무장투쟁에서 찾는다. 이러한 항일무장투쟁은 군사적 기풍에 근원을 두고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인민군 계급과 최고사령관을 우선적으로 부여한 것은²⁾ 최고지도자의 뿌리는 군사지도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후대수령에게 군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조치였다. 따라서 김일성 계열의 빨치산 그룹은 항일무장투쟁을 동고동락한 동지로서 인민군의 역사적 적통으로 볼 수 있으며, 군 엘리트는 체제 보위의 핵심세력으로 3대 세습의 중요한 지원세력이었다.

김일성 집권기는 빨치산 출신의 혁명 1세대가 당정군엘리트의 중추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김정일 집권기는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난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을 우선하는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을 했다.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당 기능은 형해화되고 군부가 엘리트내 핵심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군이 선도하는 기형적인 정치체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김정일은 2008년 와병에서 회복하고 2009년부터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면서 당 기능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1) 세종연구소 편, 『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대』 (한울: 2007), p.94.

2) 김정일은 199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2년 4월에 원수가 됐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7일 인민군 대장,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12월 30일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김정은은 2011년 집권 이후 군부실세인 이영호를 숙청하고, 인민 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군부를 장악했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고도화하여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미국 주도하 유엔제재가 잇따르자 북미간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도래했다. 그러나,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을 매개로 3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비핵화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이 선대 수령의 유산인 핵무기의 고도화를 단기간에 달성하고, 전향적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합의한 배경에는 당정군엘리트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정군위에 군림하는 수령이 무제한적인 자유 재량권을 가지는 사인주의 독재정권의 전형이다. 김정은은 세습 승계에서 백두혈통의 적통으로 정통성과 더불어 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 등 당정군 최고직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독재자는 홀로 통치할 수 없고 특히 세습 승계는 이를 지원하는 당정군엘리트의 지원이 필요하다.

1946년부터 2008년까지 하루라도 권력을 장악하였던 독재자의 60% 이상이 내부자에 의해 제거되었다는⁴⁾ 점은 독재자와 권력엘리트의 긴항관계가 체제 내구성의 원천임을 시사한다. 특히 사인주의 독재정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수령체제에서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도전세력은 군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재자는 군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의 증강에 부정적 반응을

3) 김정은은 집권이후 핵실험 4회, 2017년에 중거리, ICBM급 등 미사일을 15회 발사하였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9), p.228-229.

4) Milan W. Svob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5.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압도적인 위력은 재래식 전력을 핵무기의 보조수단으로 격하시켜 전문적인 군인집단의 성장을 저지함으로서 수령의 잠재적인 도전세력을 굴복시키는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⁵⁾ 특히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군부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이러한 핵무기 개발은 과학자들의 기술적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핵미사일에 대한 독점적인 지휘통제체계를 구사하여 통치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⁶⁾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공헌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부서 과학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주는 명령제008호가 하달했다’고 보도했다.⁷⁾ 이와 같은 핵과학자에 대한 우대는 잠재적으로 군부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군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근’으로 당 고위 직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는 정치의 우선은 권력을 잡는 것이며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측근에게 보상을 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독재자에 대한 반란은 지지그룹의 충성심에 좌우되므로 이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승리연합이 소규모 집단일수록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이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한다.⁸⁾

특히 북한처럼 권위주의체제에서 군부는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3대 세습 승계과정에서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북한 군부의 위상은 체제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군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 되어왔다. 북한 정권의 탄생과정과 엘리트의 양성에 관한 연구⁹⁾,

5)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pp.128~131.

6) 같은 글, pp.106~107.

7) 네이버 검색일(8.13), <http://www.asiae.co.kr/article/2019081311520736313>.

8) 브루노 부에노 데 메스키타, 알라스테어 스미스, 이미숙 역, 『독재자의 핸드북』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2012), p.315.

9)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서울: 선인출판사, 2015); 현성일, 『북한 국가전략과

북한 지도자의 교체와 관련한 엘리트의 변화 여부¹⁰⁾, 또는 당과 국가기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엘리트의 위상을 탐구한 연구¹¹⁾, 특정 시기별로 분석한 산물¹²⁾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당 기능의 정상화 조치와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군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일부 연구는¹³⁾ 북한 군엘리트의 위상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 엘리트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연계를 제시하여 북한 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를 제시하였다. 군부의 위상 변화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진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북한체제의 역사적 전통성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출발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은 군사적 기풍을 중요시하므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세습 승계의 정치체제 특성상 군은 수령의 군대이므로 세습 승계과정에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를 미시적으로 조망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 군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는 선대 수령의 유훈을 당 규약과 헌법에 명시하여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 하고 있다. 세습의 권력 승계는 선대의 정책을 따르는 한계를 내포하며, 체제를 지원하는 군부엘리트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미시적 관점의 군 엘리트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거시적이며 역사적 관점에서 군 엘리트의 위상을 조망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출판사, 2007).

- 10) 통일연구원,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전현준,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5).
- 11)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2013); 세종연구소, 『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대』 (서울: 한울, 2007).
- 12) 이종철, “선군정치하 군 엘리트 파워 고찰,” 『동아연구』 통권 60호 (서울: 서강대학교, 2011)
- 13)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2017).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가설은 북한 인민군의 당 우위의 선당후군 체제로의 전환과 핵무기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설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북한 군 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를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적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노동당은 권력의 원천이자 중핵이며,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를 지도하는 핵심이므로¹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하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지배엘리트라고 설명한다.¹⁵⁾ 그러므로 군 엘리트가 당 정치국과 당중앙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군부의 위상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정치체제의 폐쇄성을 고려해 볼 때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중심의 군 엘리트의 위상변화는 최소변수의 한계성을 포지하고 있음을 사전에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김일성이 수령으로 지위를 공고히 한 1946년 제1차 당대회 부터 2018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까지로 한정한다. 한편 김정일 시대는 당 관련 행사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주석단 서열과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가. 당군관계이론

1) 사회주의체제 당군관계

레닌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론을

14) 세종연구소 편, (2007), pp.534.

15) 같은 책, p.530.

구체화했다. ‘당의 규율’을 강조하고, ‘당의 지도하에 전체계급을 통제해야 하며,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영도와 당 중앙위원회의 권력 집중을 수용했다.¹⁶⁾ 이것은 ‘당의 영도적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사회주의체제 당군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당군관계를 유형화하거나, 당군관계를 갈등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당군관계를 유형화 한 대표적인 학자인 펄뮤터(Amos Permutter)와 그란테(Leo Grande)는 군부의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당군관계를 연립적, 공생적, 융합적 단계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⁷⁾ 연립형 모델은 당군관계가 동등하므로 연립하여 상생을 하며, 공생형 모델은 당군간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어 모든 조직에서 상호 연립하는 것이고, 융합형 모델은 당의 기능이 약화되어 군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콜코비츠(Roman Kolkowicz)는 당군관계는 본질적으로 갈등적 관계이며 군의 영향력 확대는 상대적으로 당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므로 군을 당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세력으로 해석한다.¹⁸⁾

올브라이트(David E, Albright)는 당군관계를 갈등이나 연립의 양분법적 관계로 보지 않고 갈등과 연립의 연장선 관점에서 설명한다.¹⁹⁾ 당군관계를 결정하는 10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이러한 요소에 따라 당군관계가 변형, 공고화, 유지하는 단계로 보았다. 변형단계는 당이 군에 대하여 소프트한 통제를 하는 단계이며, 공고화단계는

16) 레닌,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p.17~19, 47.

17) Amos Permutter and Leo Grande,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December, 1982), p.782.

18)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2013. p.73.

19) David E, Albright,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XXXII, No. 4(July, 1980), pp.557~576.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하여 당의 군대로 만드는 단계이고, 유지단계는 공고화된 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단계이다.

당군관계이론 관점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정치체제는 다수의 군부엘리트가 당 직위에 겸직하고 있으나, 당이 군을 선도하고 있으므로 당이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2) 북한의 당군관계와 당 기구

북한은 기본적으로 당국가체제이다. 따라서 당이 국가기구, 군을 선도한다.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인도하는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로 규정하고 있다.²⁰⁾ 이러한 당의 위상은 당 대회, 당 대표자회, 당 전원회의 등 당 기구에서 채택하는 당 규약에 따라 구체화된다.

당 대회는 1946년 1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제7차 당 대회까지 총 7차례 열렸다. 개최 주기는 명시되어있으나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고,²¹⁾ 세습 승계와 대내외적 정치환경에 따라 임의로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당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지도기관’(21조)²²⁾으로 명시하여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

당대표자회는 당 대회 사이에 주요 정치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최했다.²³⁾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당 규약에는

20) 『로동신문』, 2010. 9.29.

21) 당 대회 개최 주기는 1년에서 4년, 5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 1차 1946년, 2차 1948년, 3차 1956년, 4차 1961년, 5차 1970년, 6차 1980년, 7차 2016년.

22) 『로동신문』, 2016.5.9.

23) 1차는 1958년, 2차는 1966년, 3차는 2010년, 4차는 2012년 열렸다.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문제를 토의결정하며 당중앙 지도기관을 소환하고 보선하고, 당 최고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30조)²⁴⁾ 따라서 당대표자회는 당 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지도기관이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규약에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지도하며(23조), 전원회의를 1년에 한번 이상 개최하여 당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고 명시했다.(24조)²⁵⁾ 당 중앙위원회는 200여명의 정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위원은 당정군 핵심엘리트가 대부분 포함되며 후보위원은 잠재적인 핵심엘리트 후보군이다.

정치국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되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25조)²⁶⁾고 명시했다. 정치국은 당정군 최고직위자를 포함하여 30여명의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북한 정치체제를 움직이는 권력의 중핵으로 볼 수 있다.

인민군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빨치산을 중심으로 창설되었으며 김일성의 권력장악과 세습 승계에 기반이 되었다. 인민군의 정치화는 군내에 당 조직이 설치된 1950년 이후 이루어져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²⁷⁾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선군혁명 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다.

24) 『로동신문』, 2010.9.29.

25) 『로동신문』, 2010.9.29.

26) 『로동신문』, 2010.9.29.

27) 세종연구소 편, (2007), pp.473~480.

조선인민군은 모든 정치 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고 명시하여 인민군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²⁸⁾ 김정은은 인민군에 대하여 당적 지도와 군사 지도권과 지휘권을 행사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 통제를 받는 총정치국은 각급 부대별 정치부와 정치지도원을 이용하여 군에 대한 당적 통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인민군에 대하여 정치와 군사분야에 대한 이원적 지도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수령과 당의 군대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나. 북한의 당정군엘리트

북한에서 엘리트는 “반동적 부르췌아 사회에서 선발된 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엘리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당정군을 주도하는 지배층 즉 ‘간부’를 엘리트로 볼 수 있다. ‘간부’를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일하는 핵심일꾼, 당의 골간 역량이며 당 정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⁹⁾ 따라서, 북한체제는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당국가 체제이므로 정치는 선형적이며 간부는 당정군엘리트가 되기도 한다.

정치엘리트 중 특히 소수의 권력엘리트는 핵심간부와 유사한 개념이다.³⁰⁾ ‘핵심간부’는 “조직과 집단안에서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간부”이며 “간부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간부”라고 한다.³¹⁾ 핵심간부는 영도핵심과 지도핵심을 구성하는 당 엘리트로 볼 수 있으며 그 구성원들은 당 대회나 당 대표자회에서 선출하는 당

28)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2003~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0), p.948.

29)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64.

30) 통일연구원 편,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19.

31) 『조선말대사전 1』, p.1056.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할 수 있다.³²⁾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는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당 비서(정무국),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국방(국무)위원, 내각 총리, 당부장급 등 당정군 엘리트가 포함된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중에서 영도핵심은 상층 지배계급으로 정치행사의 주석단에 위치하는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정무국 위원장과 부위원장), 국방(국무)위원회 구성원,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당 부장급 등 30~50여명의 인물들이다. 지도핵심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볼 수 있다.³³⁾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와 스미스(Alastair Smith)는 정치지도자들은 정치 그룹을 명목 선출인단(nominal selectorate), 실제 선출인단(real selectorate),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으로 나눈다고 했다. 명목 선출인단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법적인 발언권을 가진 그룹이며, 실제 선출인단은 실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집단이다. 승리연합은 실제 선출인단의 일부집단으로 이들의 지지 없이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없는 소수의 집단이다. 명목 선출인단은 대체 가능 집단(interchangeables), 실제 선출인단은 유력 집단(influentials), 승리연합은 핵심집단(essentials)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대규모 명목 선출인단, 실제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소규모 실제 선출인단, 200여명의 승리연합이 존재하며, 이 세 가지 집단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서 정치가 작동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³⁴⁾ 이러한 모델을 북한의 당정군엘리트에 적용하면 명목선출인단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실제 선출인단은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승리연합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32) 통일연구원 편, (2012), p.20.

33) 세종연구소 편, (2007), p.528.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비서국은 정무국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는 국무위원회로 개편.

34) 이미숙 역, (2012), p.310.

3. 북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

가. 김일성 정권 : 유일지배체제 확립과 군 엘리트의 생산

1) 계파별 연정(1946~1949)

해방 전 북한에는 토종 공산주의 세력과 광복회출신의 갑산파가 공존하고 있었고, 해방 이후 김일성 계열의 동북항일연군 출신인 빨치산파와 소련출신의 한인으로 구성된 소련파,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던 연안파가 들어왔다. 김일성계열의 빨치산은 소수였으며 국내공산주의와 연안파가 다수를 차지했다.

북한내 정치세력들은 북로동을 창당한 이후 1946년 8월 28일 제 1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중앙위원회위원 43명을 선출했다. 선출결과 김일성파는 김일성, 김책, 안길, 김일 등 4명, 연안파는 18명, 소련파는 8명, 국내공산주의파는 11명 등 김일성파는 소수에 불과했다.³⁵⁾ 당 중앙위원 가운데 군 관련 직책은 무정(포병사령관), 김일(보안간부훈련소 문화부장) 등 2명에 불과했다.

1948년 제2차 당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회위원 67명 중 빨치산은 김일성, 김책, 김일, 강건, 김광협, 김경석 등 6명, 연안파 18명, 소련파는 16명, 국내파 13명, 갑산파 2명 등 김일성파는 여전히 소수였으며 연안파와 소련파, 국내파가 다수를 차지했다. 군 관련 직책을 가진 위원은 총 11명으로 1차 당 대회보다 증가했다.³⁶⁾

1949년 6월 30일 남북로동당이 통합하여 조선로동당이 창당됐다. 남로당의 참여로 조선로동당의 내부권력구조는 종래의 정파연합적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당 운영은 정파간의 균형과 견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35) 세종연구소 편, (2007), p.545.

36) 김일, 무정, 박효삼, 김광협, 임해, 강건, 김웅, 장철, 리권무, 김경석, 김광빈

2) 군 엘리트의 형성과 위상 약화(1950~1970)

김일성은 1950년 6월 26일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위원장, 내각수상을 겸직한 상태에서 당 정권 최고권력을 독점했다. 1950년 9월 15일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조선노동당 지도부는 군대 내에 군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고,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면서 군대 내 당 조직을 만들기를 결정하고, 이를 총괄할 인민군 총정치국을 신설했다.³⁷⁾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대 내 당 조직이 설치되어 노동당은 군대의 하부 단위까지 더욱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³⁸⁾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이용하여 전쟁 실패의 책임과 당 노선 불일치의 책임을 물어 연안파와 빨치산의 군부지도자, 소련파 허가이, 남로당 계열을 청산하여 당권 강화의 기회로 활용했다.

북한은 1956년 4월 23일 제3차 당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위원 71명을 선출했다. 당중앙위원회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였던 연안파와 소련파, 국내파가 감소하고 빨치산 출신은 김일성 등 9명으로 2차 당 대회 보다 늘어났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중 남아있는 연안파와 소련파도 모두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인물로 교체되면서 해방 이후 유지되던 파벌 간 정치연합의 틀이 무너지고 김일성계열로 통일됐다. 군 엘리트는 12명이 선출되어 전체 위원의 17%를 차지하면서 2차 당 대회에서 선출한 11명 16%보다 늘어났다.³⁹⁾

1961년 9월에 열린 제4차 당 대회는 김일성계열이 당권을 장악하면서 당 중앙위원회위원 85명 중 30명, 후보위원 50명 중 6명을 빨치산 출신으로 선출했다. 제3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위원 71명 중 28명만 재선되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빨치산파와 갑산파, 그리고 전

37)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239~240.

38) 세종연구소 편, (2007), p.124.

39) 최용건, 남일, 김광협, 최현, 최종학, 한일무, 이권무, 유경수, 김경석, 이영호, 김창덕, 이유민

문관료로 교체되어 당 중앙위원회위원은 김일성계파가 장악한 것이다. 군 엘리트는 22명이 선출되어 26%로 3차 당대회 17%에 비하여 증가했다.

당 지도기관 선거에서도 빨치산 출신이 약진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이효순이 선출됐다. 정치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박정애, 김광협, 정일룡, 남일, 이종옥이 선출됐다. 빨치산 출신은 최용건, 김일, 김광협이 발탁됐으며, 소련과 남일과 연안과 김창만 그리고 국내파 박정애는 이미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다. 군엘리트는 최용건, 김광협, 남일 등 3명이 포함됐다.

1966년 10월 12일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도 김일성 계열은 당권 독점을 유지했다. 당 정치위원회 상무위원에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이효순, 김광협을, 정치위원에는 김익선, 김창봉, 박성철, 최현, 리영호, 후보위원에는 석산, 허봉학, 최광, 오진우, 임춘추, 김동규, 김영주, 박용국, 정경복이 임명됐다. 군 엘리트는 최용건, 김광협, 최현, 김창봉, 석산, 허봉학, 최광, 오진우 등 8명이 포함됐다. 제2차 당대표자 이후 김일성은 ‘수령에 대한 충성과 유일사상체계’를 강조하면서 간부정책에서의 출신성분과 사상성을 중시했다.

김일성에게 빨치산의 당정군 핵심직위 진출과 4대군사노선 추진으로 야기 된 군부엘리트의 위상 강화는 역으로 경제발전의 부진과 맞물려 군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반면 한국은 월남전 참전과 대일 수교로 자본을 확충하여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김일성은 군부의 대남강경정책이 계속됨에 따라⁴⁰⁾ 군사모험주의의 예봉을 꺾을 필요가 있었다.⁴¹⁾ 김일성은 이들이 좌경맹동주의자로서 대남정책에서 군사모험주의를 추구하여 ‘좌경적 오류’를 저

40) 청와대 습격,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울진·삼척 무장 특공대 침투 등

41)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432~433.

질렀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비의 지출로 경제발전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현실정치에서 멀어진 군부의 군사행동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진우는 군의 정치 관여를 정리하였다. 1969년 1월 인민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 최민철, 정병갑, 유창권, 김양춘 등등 군부내 북만주 유격대출신을 숙청하여 순수 김일성 계열 빨치산 중심으로 재편했다.⁴²⁾ 당과 정부에서 빨치산 그룹이 제거되고 현역 군인들의 모습이 사라졌다.⁴³⁾

1970년 11월 2일에 열린 5차 당 대회는 김일성이 추구한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했다. 당 규약에는 주체사상이 지도이념으로 반영되고, 당원의 의무에 유일사상체제를 학습할 것을 포함했다. 김일성은 당대회 연설에서 정치성위주로 간부를 선발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성 위주의 간부선발은 당과 노동계급,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엘리트를 충원하는데 목적이 있다.⁴⁴⁾ 정치성 위주의 간부충원 원칙의 최대 수혜자는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의 혁명 2세대였다.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은 반종파투쟁과정에서 당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 중앙위원회에 진출했다. 제5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위원 117명, 후보위원 55명 등 총 172명을 선출했다. 당 중앙위원회위원 117명 중 86명이 새롭게 선출되었고, 후보위원 55명 중 48명이 교체되어 중앙위원회 172명 중 66%인 114명이 교체되어 종래의 당 대회와 비교하여 교체율이 높았다. 특히, 당 중앙위원회위원 117명 중 빨치산 출신이 34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군 엘리

42) 이흥석,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의 제도화를 중심으로”(국민대학교 박사논문, 2018), p.127.

43)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119.

44)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출판사, 2007) p.98.

트는 27명으로 전체의 23%였으며, 제4차 당 대회의 22명 보다 5명이 늘었으나 정위원이 85명에서 117명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다소 감소했다. 당 지도기관 선거에서는 정치위원 11명 중 10명을 김일성계인 오진우, 김동규, 서철, 김중린, 한익수 등 빨치산 그룹으로 교체하면서 군부출신은 최용건, 최현, 오진우, 서철, 한익수 등 5명으로 늘어났다.

3) 김정일 후계체제와 군부의 세대 교체(1973~1993)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 조직, 선전선동담당 비서,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혁명 2세대에 속하는 양형섭, 김영남, 연형묵, 박수동이 정치위원회에 동반 진출하면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대비한 당정군엘리트의 점진적 교체가 시작됐다.

북한체제가 출발한 이후 지도부의 세대교체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세대 간의 교체가 30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면 1970년대 추진된 세대교체작업이 1980년에 지도부의 개편으로 가시화된 것이다.⁴⁵⁾ 제6차 당 대회에서는 정위원 145명, 후보위원 103명 등 총 248명으로 5차 당 대회와 비교하면 76명이 증가했다. 당중앙위원회위원 248명 중 176명이 새로운 얼굴로 선출되어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빨치산 1세대는 감소한 반면 김정일을 포함하여 오극렬, 계웅태, 허담, 최영림, 황장엽, 김국태 등 만경대혁명학원 출신과 빨치산 2세대의 진출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김일성이 양성한 혁명 2세대가 당정군엘리트의 세대교체를 주도하면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담보하는 권력엘리트로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 군 엘리트는 30명으로 전체의 21%로서 제5차 당 대회보다 3명이 늘었으

45) 세종연구소 편, (2007), p.565.

나 정위원이 117명에서 145명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유사한 수준이다.

정치국의 구성원도 늘어났다. 정위원은 김일성 등 19명, 후보위원은 허담 등 15명을 선출하여 총 34명으로서 5차 당 대회 16명보다 늘어났다. 정치국 정위원은 최용건 등 혁명 1세대는 4명이 탈락하고, 김일, 박성철, 최현, 오진우, 서철, 김중린 등 6명이 재선출되었다. 혁명 2세대이자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이며 김정일의 3대혁명소조운동에 참가한 김영남, 김환, 연형묵, 오극렬, 계응태, 강성산, 백학립 등 신진세력도 등용됐다. 정위원은 제5차 당대회에서 10명 중 9명이 혁명 1세대였으나, 제6차 대회는 19명 중 10명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군 출신은 9명으로 제5차 당대회에 비하여 늘어났다.⁴⁶⁾ 제6차 당대회 결과 혁명 1세대는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혁명 2세대를 충원하여 노장의 배합을 도모하고 더불어 군부를 확대함으로써 엘리트 그룹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확립하려는 의도였다.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당 대회나 당 대표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엘리트층을 충원하면서,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을 교체했다. 1981년부터 1993년 12월까지 당중앙위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은 79명, 후보위원은 111명 등 190명을 포함하여 총 261명을 교체했다.⁴⁷⁾ 따라서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층을 김일성 세대로부터 자신의 세대로 바꾸는데 성공했다.⁴⁸⁾ 군 엘리트는 김광진, 전진수, 한성룡, 이용무, 김명국, 김격식, 주상성, 강동윤, 김정각, 현철해 등이 선출됐다. 반면 핵심엘리트인 정치국은 제6차 당 대회에서 34명을 선출하였으나 21명만 현직을 유지하고 13명은 결원이나 공석으로 유지했다.

46) 오진우, 최현, 서철, 오백룡, 오극렬, 백학립, 최광, 김철만, 김강환

47) 서대숙, (2000), p.230.

48) 같은 책, p.207.

4) 김일성 시대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

김일성 시대 군 엘리트는 빨치산 출신을 기반으로 주도세력으로 성장했다. 소수파였던 김일성계열의 빨치산 세력은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확립과 맞물려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등 정치세력을 단계적으로 숙청하고 1961년 제4차 당 대회 이후 당정군 주요직위에서 핵심엘리트로 부상했다. 이 가운데 당중앙위원회에서 군 엘리트 비율은 제3차 당 대회까지는 최대 18% 수준이었으나, 제4차 당대회부터 제6차 당대회까지 20% 수준 이상을 유지했다.

<표1> 당 중앙위원회 군 엘리트 중앙위원/군엘리트(%)

구분	제1차 당대회	제2차 당대회	제3차 당대회	제4차 당대회	제5차 당대회	제6차 당대회
군 엘리트	43/1(2)	67/10(15)	71/12(18)	85/22(26)	117/27(23)	145/30(21)

출처: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3)』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을 기초로 편집.

북한정치체제에서 영도핵심으로 볼 수 있는 당 정치위원 중 군엘리트 비율은 제1차, 제2차 당대회까지는 5% 이하 소수였으나, 제3차 당 대회부터 제6차 당대회까지 25% 이상 유지했다.

<표2> 당 정치위원 군 엘리트 정치위원/군엘리트(%)

구분	제1차 당대회	제2차 당대회	제3차 당대회	제4차 당대회	제5차 당대회	제6차 당대회
군 엘리트	18/0	23/1(4)	15/4(27)	11/3(27)	15/4(27)	34/9(26)

출처: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3)』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을 기초로 편집.

김일성 시대 당정군엘리트는 제3차 당대회부터 빨치산 출신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빨치산세력은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와 연계하여 권력의 증핵으로 볼 수 있는 당 정치위원회와 당 중앙위원회에서 주도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아울러 빨치산 세력의 근원인 군 엘리트

트도 동반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 된 이후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까지 당 대회, 당 대표자회를 열지 않았다.⁴⁹⁾ 반면 당 전원회의에서 제6차 당 대회에서 선출한 당 중앙위원 190명을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맞물려 혁명 2세대로 세대교체를 했다. 이 시기에 군부세력도 기존 혁명 1세대와 더불어 최광이 복원되면서 김광진, 김영춘, 이용무, 한성룡, 김격식, 주상성, 정하철, 김정각 등이 부상했다.

나. 김정일 정권 : 선군정치와 군 엘리트의 약진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대내외 열악한 환경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선군정치를 내세웠고 이에 따라 군부세력이 엘리트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김정일은 1993년 12월 제6기 21차 전원회의 이후 당 대회나 당 대표자회,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엘리트를 충원했다.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비정상적인 정치현상으로 일견 보일 수 있으나 선군정치의 관점에서는 ‘선군후당’의 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써 군대를 내세우는 비정상적 국가운영방식을 선택한 것이다.⁵⁰⁾ 이에 따라 김정일 집권기는 당 정치국 위원의 결원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았으므로 군엘리트의 변화는 주석단⁵¹⁾ 서열과 국방위원회 구성원을 분석하여 알아보겠다. 비록 주석단 서열과 국방위원회 구성이 권력 실세를 확인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핵심엘리트를 식별

49) 1990년 군 엘리트는 당 중앙위 정위원 141명 중 31명으로 22%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p.163.

50) 이정철, “조선로동당 제3차 당 대표자회의와 김정일 후계 체제,” 『유라시아연구』 제 8권 제1호 (2011.3), p.196.

51) 대회나 회의 등에서 그 사업을 지도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지도자들의 집단. 『조선말대사전』, (평양: 동광출판사, 1992).

하고 변동 추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 국방위원회와 군 엘리트의 부상(1994~2008)

북한이 1994년 7월 9일 발표한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주석단 서열 30위 안에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가 망라되고, 군부 인사는 오진우, 최광, 김철만 등 3명이 포함됐다.⁵²⁾ 그러나,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1995년 10월 10일 당 창건 50주년 기념식 이후 군 엘리트가 부상했다. 사망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후임으로 총참모장 최광을 임명하고 최광과 리을설은 인민군 원수, 조명록, 리하일, 김영춘을 인민군 차수로 승진했다. 총참모장으로 임명된 김영춘 차수는 서열이 88위에서 12위, 총정치국장 조명록은 서열 89위에서 11위로 급등하였고, 10명의 군 엘리트가 주석단 서열 30위내 진입했다.⁵³⁾

김일성 사후 3년의 유훈통치를 마치고 1998년 7월 26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했다. 1990년 5월 제9기 대의원 선거이후 8년 3개월 만에 최고인민회의가 정상화 되면서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에서 제9기 대의원 687명 중 전체인원의 64%에 해당하는 449명을 교체했다. 특히, 군부 인물은 새로 선출된 현철해, 박재경, 김정각, 이명수 등으로 제9기 대의원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9월 5일 열린 제10기 1차 회의 주석단에는 군 출신이 8명으로 증가했다.⁵⁴⁾ 김정일의 통치방식인 선군정치는 변종적인 군사국가를 탄생시켰으며, 군사국가를 지도하는 군부엘리트가 당정군엘리트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52) 1965년부터 1994년까지 주석단 내 군부비율은 평균 19.8%였다. 이종철, “선군정치하 군 엘리트 파워 고찰”, 『동아연구』 통권 60호 (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1).

53) 최광, 김철만, 리을설, 백학림, 리두익, 김광진, 김익현, 조명록, 리하일, 김영춘

54) 조명록, 리을설, 김일철, 리용무, 김영춘, 김철만, 백학림, 전문섭

북한에서 주석단 서열 내 군 엘리트의 위상은 2004년부터 김정
은의 후계구축이 시작된 2009년까지 유지되었다. 주석단 내 군부
인물을 살펴보면 2004년 김일성 추모 행사는 10명, 2005년 당 창
건 60돌 행사에는 4명, 2006년 김정일 생일 행사에서는 4명,
2007년 인민군 창건 열병식에는 5명,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행사에는 5명, 2009년 김일성 사망 추모식에는 7명이 포함됐다.
특히, 동일 행사에서 서열 10위 내에는 4~5명 수준을 유지했다.⁵⁵⁾

북한의 국가기구 중에서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개
정할 때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1992년
헌법 개정시 권한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1998년 김정일 체제가 출범
할 때 국방 전반을 지도하는 최고기관으로 격상됐다. 김정일 정권의
지도이념인 선군사상을 집행하는 선군정치 지도기관으로서 당 중
앙위원회를 기능적으로 대신하여 당정을 운영하는 대표기관으로 올
라선 것이다. 국방위원회 위원은 1993년 주석단 서열 10위내 최광
1명만 포함되었으나 1998년 4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1998년부터
정부원 소속의 보안기관인 인민보안상도 국방위원회에 포함했는데,
체제보위를 위하여 국방과 치안 기능은 완벽히 통제하겠다는 의도
로 볼 수 있다.

2003년 8월 3일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로 김정일 2기 정권이
출범하고, 9월 3일 제11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국방위
원장으로 재추대했다. 회의시 주석단 서열 10명 중에서 6명은 군부
엘리트로서 국방위원을 겸직했다. 김정일 집권기에 국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 엘리트는 1993년 11명 중 6명, 1998년 10명 중 7명,
2003년 9명 중 6명 등 평균 64%였다.⁵⁶⁾

55) 2004년 31%, 2005년 19%, 2006년 24%, 2007년 26%, 2008년 29%, 2009년
30%이다. 이종철, (2011), p.54.

56) 1993년 오진우, 최광, 김철만, 리하일, 리을설, 김광진, 1998년 조명룡, 김일철, 리용무, 김영춘,
리을설, 백학립, 김철만, 2003년 조명룡, 리용무, 김영춘, 김일철, 최룡수, 백세봉

김정일집권기에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에 비하여 당 기능은 형해화됐다.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 조직사업을 지도하는 당 전원회의도 열리지 않아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의 결원은 공석으로 유지했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은 34명을 선출했으나 2008년에 상무위원은 김정일, 정치위원은 박성철 등 5명만 남았으며, 후보위원도 6명으로 줄었으나 충원하지 않았다.

2) 김정은 후계체제와 군 엘리트의 지원(2009~2011)

김정일은 뇌경색을 극복하고 2009년부터 활발한 현지지도를 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매진했다. 먼저, 군 지휘부를 개편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춘을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에는 평방사령관인 이영호,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의 혁명 2세대인 오극렬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가로 임명했다.

북한은 2009년 4월 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국방위원회가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임을 명백히 했다. 6월 7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히, 북한이 2009년도에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3차례나 개최한 것은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김영춘, 김정각 등 군부원로와 장성택 등 친인척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우동측 등 보안기관 책임자를 포함함으로써 군부엘리트를 중심으로 국방위원회를 강화했다.⁵⁷⁾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시기에 2010년부터 중동에서 재스민혁명이 발생하여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의 독재자가 물러났다. 재스민 혁명의 여파가 북한에도 영향을 줄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57) 2009년 국방위원은 조명록, 김영춘, 이용무, 오극렬, 김일철, 백세봉, 주상성, 우동측, 김정각이다.

는 시기에 북한은 오히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 공격, 11월 연평도 포격 등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선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선군정치로 형성되었던 군 우위의 정치체제에 대한 재편을 시도했다.

당대표자회의의 결과를 보면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김정일, 김정은 등 124명, 후보위원에 강기섭, 황병서 등 105명을 선출했다. 이 가운데 군 엘리트는 44명을 선출하여 3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발생한 정치국 결원에 대한 보충도 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에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이영호를 보임했다. 혁명 2세대인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의 보임은 최상층 엘리트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군부실세인 이영호를 충원하여 노장층의 배합을 도모했다. 당 정치국 정위원 17명과 후보위원 15명도 충원했다. 정위원은 기존 당정군의 영도핵심층을 보직하면서 김정일의 여제인 김경희를 발탁했다. 권력이양기에 체제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핵심엘리트층의 변화를 주지 않고 친족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부 엘리트는 조명록, 이영호 등 8명이 포함됐다.⁵⁸⁾

또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강화했다. 당 규약을 개정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분야에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의 군내 입지를 강화하고 선군사상의 후계자적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던 직위인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군부실세인 이영호와 동반으로 선출했다. 또한 당 중앙군사위원회⁵⁹⁾도 19명으로 증가하여 위상을 높였다.

58) 조명록, 이영호, 김영춘, 이용무, 주상성, 우동춘, 김경자, 김창섭

59) 당중앙군사위원회는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산하 부문별 위원회급의 군사기구로 설치됐다.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북한 군부의 세대교체도 이루어졌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기존 군부 실세 중 조명록만 임명이 되고 신진세력인 이영호를 보임했다. 이영호는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실세로 부상했다. 군부 인사로는 당내 최고직위에 임명된 것이다.

3) 김정일 시대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

군 엘리트가 주석단 서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이전은 평균 19.8%였으나,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평균 28%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 9월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부터 2003년 9월 제11기 1차 최고인민회의까지 45%로 급등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27%로 감소하였으나, 주석단 서열 10위내 평균 4~5명이 차지했다.

<표3> 주석단 군 엘리트 비율

군엘리트(%)

구분	1965~1994년	1994~1997년	1998~2003	2004~2009
군 엘리트	19.8	28	45	27

출처: 『북한총람』 (북한연구소)을 기초로 편집

국방위원회에서 군 엘리트의 비율은 김정은 집권 이후 상승했다. 1993년 국방위원회는 13명 중 6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나, 1994년 김정일 집권 이후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부터 60% 이상을 유지했다.

<표4> 국방위원회 군 엘리트 비율

국방위원/군엘리트(%)

구분	1993년	1998년	2003년	2009년
군 엘리트	13/6(46)	10/7(70)	9/6(67)	13/9(69)

출처: 북한권력기구조 (통일부)를 기초로 편집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정은 후계 구축과정에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엘리트층은 변화가 없다. 조명록, 김영춘은 노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중용되거나 재등용됐다. 둘째, 이영호, 장성택, 최용해의 약진이다. 이영호는 평방사령관에서 인민군 차수,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르며 군부 1인자로 중용됐다. 장성택은 당 행정부장으로 인민군 대장 칭호와 함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보임됐다. 친족지배력을 높이려는 김정일의 전략적 산물이다. 최용해는 인민군 대장, 당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비서로 임명됐다. 혁명 1세대인 최현의 아들로 혁명전통을 강조하면서 혁명과업의 계승을 위한 상징성과 후계체제의 당위성을 담보한 조치이다. 반면, 이영호, 장성택, 최용해 3인에 대한 세력균형도 엿볼 수 있다. 이영호와 최용해는 국방위원회, 장성택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임명되지 않았다. 김정일은 당정군 분야별로 김정은 후계체제를 견인할 인물로 3인을 지명하였으나 후계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은 분산시킨 것이다. 셋째,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강화했다. 유명무실한 당 기구였던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부문별 위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와 동격으로 격상시키면서 부위원장을 신설하였고, 김정은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 것은 비대해진 군부 중심의 국방위원회를 견제하고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군부인사의 세대교체와 신 군부의 중용이다. 조명록, 오극렬를 대신하여 이영호를 중심으로 군부를 재편했고 황병서를 진급시켰다.

다. 김정은 정권 : 당 기능 회복·핵미사일 고도화와 군 엘리트

1) 군 엘리트의 세대 교체(2012~2015)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후 김정은을 2012년 4월

11일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제1비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장으로 추대했다. 더불어 정치국은 35명 중 16명을 교체됐다. 군 엘리트는 8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조명록, 김영춘, 리용무, 주상성, 우동측이 물러나고 현철해, 김원홍, 이명수, 오극렬, 리병삼이 임명됐다. 이명수는 국방위 행정국장에서 인민보안부장으로 보직되어 위상이 높아졌다. 비대해진 군부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군부 원로격인 김영춘, 리용무는 퇴출하고 장년층을 새롭게 보임하면서 군부 세대교체가 시작됐다. 당 중앙위원회는 총 115명을 선출하였으며 군 엘리트는 42명으로 제3차 당대표자회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사회주의국가에서 군대는 당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정일시대는 선군정치로 당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한편 김정일이 2009년부터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면서 당국가체제로의 복귀를 추진하던 중 사망하였고, 더불어 후계준비가 부족하였던 김정은 입장에서는 군에 대한 당적통제가 최우선 과업이었을 것이다.

김정은은 군내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2012년 4월 16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서 먼저 ‘항일빨치산 정신이 인민군대의 좌우명이며 전통’이라고 언급하고 ‘인민군대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 전일체’가 되어야 하며 ‘관병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강화하자’고 강조하면서 ‘군민일치는 사회의 근본이고 선군혁명의 천하지 대본’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기초하에 군 엘리트에 대한 ‘강압과 회유전략’으로 인민군대에 대한 세대교체를 시작했다.

김정은은 가장 먼저 이영호를 2012년 7월에 숙청하고, 최용해는 12월에 대장으로 강등하여 혁명화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인민무력부장은 2012년 김영춘, 김정각, 김격식으로 교체했고 2013년은 장정남으로 2014년에는 현영철로 바뀌었으나, 현영철은 2015년 4월경 총살되었으며 후임은 정치군관 출신인 박영식을 임명했다. 총참모장

은 2012년 이영호에서 현영철로, 2013년에는 김격식에서 이영길로 교체했다. 인민군 핵심실세인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을 수시로 교체한 것은 김정은의 리더십을 안정성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군의 핵심요직을 수시로 교체함으로써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유일영도체제 확립에 반하는 세력을 제거하여 김정일시대에 비대해진 군부세력을 약화시키는 의도이다.

더불어 인민군내 당적 지도를 담당하는 총정치국장도 교체했다. 2014년 4월 2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최용해를 해임하고 당 조직지도부에서 성장한 황병서를 대장으로 진급시켜 총정치국장에 보임했다. 군인출신으로 당 조직의 전문가인 황병서를 총정치국에 임명한 것은 기존 군부실세의 세력을 약화시켜 인민군대에 대한 김정은의 영도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당 기구를 정상화하여 당 중심의 정치체제도 복원했다.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당 정치국을 재편했다. 박봉주를 정치국 위원으로,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격식, 인민보안부장 최부일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했다. 김격식은 인민무력부장 김정각을 대신하여 후보위원으로 그리고 최부일은 인민보안부장 이명수가 소환되면서 보임됐다. 현영철은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됐으나 복권 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 새로 선임된 3인은 기존 인물에 비하여 동일한 직책에 보임됐으나 정치국 위상은 한 계단 낮아졌다. 정치국내 군 엘리트는 7명으로 2012년과 동일하나 상무위원은 임명되지 않았고, 정위원은 현철해와 김원홍 2명으로 1명이 줄었으나 후보위원은 오극렬, 현영철, 김격식, 최부일, 이병삼 등 5명으로 3명이 늘어났다.

이어서 2014년 4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장성택 처형 이후 당내 세력을 재편했다. 김정각, 현철해, 이명수

등 혁명 2세대는 정치위원에서 제외됐다. 또한, 정치국 후보위원은 군부실세로 등장한 김격식, 최부일, 리영길이 선출됐다. 군 엘리트는 2013년과 동일하게 7명이나 정위원으로 김영춘, 리용무, 김원홍 등 3명으로 1명이 늘었고, 후보위원은 오극렬, 김격식, 최부일, 리영길이 임명되어 1명이 줄었다.

2) 핵미사일 고도화와 비핵화 협상, 군 엘리트의 유지(2016~2018)

제7차 당대회는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당 중앙위원회는 정위원 129명을 포함하여 235명을 선출하여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선출하였던 229명에 비하여 6명이 늘어났고 선출된 인원 중 과반수를 넘는 129명은 새롭게 뽑혔다. 반면 군부 엘리트의 비중은 줄었다.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위원 중 군부의 비율은 32%였으나 제7차 당대회 결과 47명으로 28%로 감소했으며 당정군 엘리트 중 최소인원이 선출됐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시기와 비교해 보면 군 엘리트는 이영호가 제외되고 황병서가 들어왔다. 황병서는 2010년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직위가 상승했다. 정치국 위원은 12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군 엘리트는 총 10명이 보직되었는데 상무위원에 황병서, 정위원에 김영철, 박영식, 이명수, 김원홍, 최부일 등 5명, 후보위원은 노광철, 김수길, 리병철, 리영길 등 4명으로 2014년 대비 늘어났다.

북한은 2018년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 중앙위원회 위원 133명을 선출했다. 군 엘리트는 4명으로 34%를 차지하였으며 제7차 당대회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치국내 군엘리트는 이명수, 최부일, 김수길, 리영길, 노광철 등 5명으로 전체 비율에서 감소했다.

3) 김정은 시대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

김정일 집권기에 개최하였던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선출한 당 중앙위원회 중 군엘리트의 비율은 38%였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후 열린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군 엘리트의 비율은 37%로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일부 연구는 당 우위의 정치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군 엘리트의 위상이 낮아졌다고 설명한다.⁶⁰⁾ 그러나, 2016년 제7차 당대회와 2018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중 군 엘리트의 비율이 34~36%라는 분석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선당후군의 당국가체제로 정상화하였지만 군부의 위상은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정치체제에서 군부는 일정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비하여 당 중앙위원회에서 군 엘리트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표5> 당 중앙위원회 군 엘리트 중앙위원/군엘리트(%)

구분	제3차 당대표자회 (2010)	제4차 당대표자회 (2012)	제7차 당대회(2016)	제7기 3차 전원회의 (2018)
군 엘리트	116/44(38)	115/42(37)	129/47(36)	133/45(34)

출처: 노동신문을 기초로 편집.

반면, 당 핵심엘리트로 볼 수 있는 정치국내 군 엘리트의 위상은 편차가 많았다. 제3차 당 대표자회부터 제7차 당대회까지 군 엘리트는 25~30% 수준을 보였으나,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14%로 대폭 감소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당 정치위원의 비중이 대략 25% 수준을 유지한 것을 고려한다면 현저하게 낮아졌다.

60) 김진무, “강군’을 정권 위협 세력으로 인식 핵심 그룹 숙청, 계급 강등 잇따라,” <https://cafe.naver.com/nuacwebzine/785> (검색일: 20017.8.15)

<표6> 당 정치위원 군 엘리트 정치위원/군엘리트(%)

구분	제3차 당대표자회 (2010)	제4차 당대표자회 (2012)	제7차 당대회 (2016)	제7기 3차 전원회의 (2018)
군 엘리트	32/8(25)	31/8(26)	28/10(36)	29/5(17)

출처: 노동신문을 기초로 편집.

라.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

1) 당 정치국

당 정치국에서 군 엘리트의 비율은 제1차, 2차 당대회는 5% 미만이나 제3차 당대회부터 제4차 당대표자회까지 20%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6년은 36%, 2018년은 17%로 진폭이 크다.

<표7> 당 정치위원 중 군 엘리트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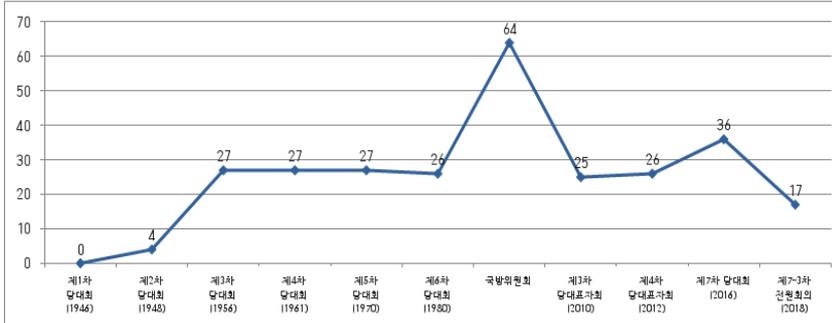
제1차 당대회 (1946)	제2차 당대회 (1948)	제3차 당대회 (1956)	제4차 당대회 (1961)	제5차 당대회 (1970)	제6차 당대회 (1980)	* 국방 위원회	제3차 당대표 자회 (2010)	제4차 당대표 자회 (2012)	제7차 당대회 (2016)	제7-3 전원 회의 (2018)
0	4	27	27	27	26	64	25	26	36	17

출처: 본문 내용을 기초로 편집.

* 국방위원회는 1993년(54%), 1998년(70%), 2003년(67%) 국방위원회 중 군 엘리트 평균 비율임.

<그림1>은 당 정치국내 군 엘리트 비율을 도표화한 것이다. X축은 1차부터 7차 당 대회, 제3차와 4차 당 대표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와 1993년, 1998년, 2003년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한 국방위원회를 나타낸다. Y축은 당 정치국 중에서 군 엘리트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1> 당 정치국 중 군 엘리트 비율



출처: 본문 내용을 기초로 편집.

정치국내에서 군 엘리트 비율은 1946년 제1차 대회에서는 0%, 제2차 당 대회는 4%였으나 제3차 당 대회이후 증가했다. 김일성은 제3차 당대회에서 개인승배에 대한 당내 비판을 극복하고 박헌영 등 국내공산주의파, 허가이 등 소련파를 숙청했으며, 이에 따라 반사적으로 김일성계열의 빨치산이 부상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 권력구조에서 패권적 연합질서가 무너지고 김일성파의 독점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한다.⁶¹⁾ 빨치산의 당 권력 독점은 인과적으로 군 엘리트의 위상을 견인하면서 제3차 당대회 이후 6차 당대회까지 20%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김정일 집권시기는 선군정치로 말미암아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면서 군 엘리트가 정치전면에 등장했다. 반면에 정치국의 기능은 형해화되면서 구성원에 대한 충원도 원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치국의 기능을 대체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군 엘리트의 비율은 평균 64%를 유지했다.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과정에 열린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도 25%로서 김일성 집권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61)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서울: 한울, 2010), p.228.

김정은 이후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군엘리트의 수준은 26%로서 기존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군 엘리트에 대한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을 빈번하게 교체하면서 당이 군을 통제하는 당 우위의 체제를 확고히 했다.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권력의 안정성을 과시하는 정치행사였으며 군 엘리트의 비율은 36%로서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군의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일부 연구와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김정은이 당 우위의 체제 안정을 바탕으로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야기된 유엔제재, 북미갈등 등 대외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부를 배려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11월에 열린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내 군 엘리트의 비율은 17%수준으로 감소했다. 194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군 엘리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외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서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당정 엘리트의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군 엘리트 위상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당 중앙위원회

<표8> 당 중앙위원회 중 군 엘리트 비율

단위 : %

제1차 당대회 (1946)	제2차 당대회 (1948)	제3차 당대회 (1956)	제4차 당대회 (1961)	제5차 당대회 (1970)	제6차 당대회 (1980)	1990	제3차 당대표자회 (2010)	제4차 당대표자회 (2012)	제7차 당대회 (2016)	제7-3 전원회의 (2018)
2	15	18	26	23	21	22	38	37	36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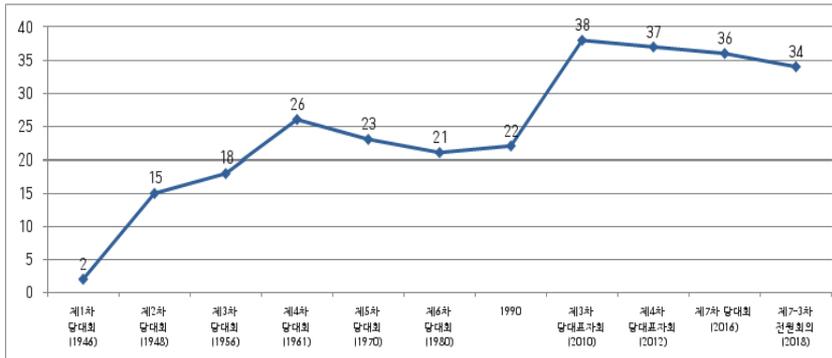
출처: 본문 내용을 기초로 편집.

당 중앙위원회에서 군 엘리트의 비율은 제1차 당대회부터 3차 당대회까지 20% 미만이었으나 제4차 당대회부터 1990년까지는 20%

이상, 제3차 당대표자부터 2018년 제7기 3차 전원회의까지 30%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2>는 당 중앙위원회내 군 엘리트 비율을 도표화한 것이다. X축은 1차부터 7차 당 대회, 제3차와 4차 당 대표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와 1993년, 1998년, 2003년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한 국방위원회를 나타낸다. Y축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군 엘리트 비율을 반영한다.

<그림2> 당 중앙위원회 중 군 엘리트 비율



출처: 본문 내용을 기초로 편집.

김일성 집권기는 제2차 당 대회부터 제4차 당 대회까지 증가한 이후 1990년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정치 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김일성은 제3차 당대회에서 개인숭배에 대한 당내 비판을 극복하고 국내공산주의파, 소련파를 숙청하면서 김일성계열의 빨치산이 당 실권을 장악했다. 이 시기에 빨치산 그룹이 실세로 등장하면서 군 엘리트의 위상도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군부의 군사모험주의는 1969년 인민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역풍을 맞으면서 김창봉 등 북만주 유격대출신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다. 더불어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와 주체사상을 내세

은 유일지배체제로 당 우위의 정치체제가 정립되면서 군 엘리트의 위상은 일정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김정일 집권기는 선군정치로 말미암아 당 기능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므로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식행사에서 확인된 주석단 서열을 분석해 보면 선군 정치에서 군 엘리트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965년부터 1994년까지 주석단 내 군부비율은 평균 19.8%였으나, 1995년 이후 주석단 서열 30위내 10여명이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27%로 분석되었다. 한편,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에 열린 당 행사라 할 수 있는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 결과를 보면 당중앙위원회 중에서 군엘리트의 비율은 38%로 높아졌으며, 이것은 군부가 후계체제 구축의 지지기반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이후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부터 2018년 제7기 3차 전원회의까지 군엘리트의 수준은 평균 3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정치체제가 당이 군을 통제하고 있으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안보환경을 고려하면 군 엘리트는 핵심적인 정치세력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체제 안정에 중요한 기반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3)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와 그 함의

북한은 군 엘리트를 항일빨치산 세력을 기반으로 제도적으로 재생산했다. 김일성시대에 생산된 군 엘리트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의 후원세력이었으나, 군의 영향력 확대는 역풍을 맞아 1969년을 기점으로 당과 수령의 군대로서 군사분야에 충실했다.

김정일 집권기는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군정치를 추진하면서 군 엘리트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후원세력의 역할을 하였으나, 당 우위의 정치체제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세대교체를 했다. 특히 김정은이 승계 한 이후 핵미사일 수준을 고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재래식 전력은 노후화됨으로서 이를 관장하는 군부엘리트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정치체제에서 권력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군 엘리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구한 결과 군 엘리트는 일정부분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집권이후 당 우위의 정치체제로 환원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위상은 유지되고 있다. 북한 권력의 중핵으로 볼 수 있는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에서 군 엘리트의 비율은 제3차 당 대회 이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뿌리를 둔 역사 재해석은 군사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최고지도자의 세습 승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구축과정에서 인민군 계급과 최고사령관직을 우선 부여한 것, 또한 민간인 신분이었던 최용해, 장성택, 김경희에게 인민군 계급을 달아준 것은 군부가 북한체제의 근원임을 확인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내외적 정치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 엘리트의 위상은 견고하다.

둘째는 당정군 주요직위에 대한 겸직이다. 겸직은 당정군엘리트 상호간 견제하고 내부 경쟁과 대외적인 배타성을 유지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결집하는 순기능을 한다. 북한은 당국가체제이므로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이원화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당 정책을 결정하는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국무위원회에는 군부 실세가 포함

되어있다. 총정치국장 김수길, 인민무력상 노광철, 인민보안상 최부일, 국가보위상 정경택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정치국위원, 국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총참모장 이영길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러한 겸직은 체제내에서 군엘리트가 정치엘리트의 역할도 병행하면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셋째는 엘리트 충원에 대하여 계서적이며(階序的) 폐쇄적이다. 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사상성, 출신성분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인물 중에서 엘리트층을 충원하여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세습체제를 지원한다. 당정군 간부들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서 출발하여 이후 당 대회나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에 선출되는 계서적 절차를 거친다. 또한 대부분의 핵심 보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나 후보위원 중에서 선출되고 교체되므로 당정군엘리트에 대한 충원은 폐쇄적이다. 군 엘리트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넷째, 체제 보위와 세습 승계에 기여하면서 노장청배합과 원로 예우의 원칙을 유지했다. 빨치산 출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최용건, 김광협, 최현 등의 혁명 1세대 군부엘리트는 김일성 집권시기 유일 지배체제확립에 기여했다. 혁명 1세대 군부엘리트는 김정일의 세습을 지원하였고, 김정일시대에 성장한 조명록, 김영춘, 리용무 등 혁명 2세대가 중추가 되어 김정일의 세습을 후원하였다. 김정은시대는 혁명 2세대 군부엘리트와 김수길, 노광철 등 혁명 3세대 군부엘리트가 3대 세습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군 엘리트는 빨치산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후손은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등 특권층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면서 특권계급화되었고 수령의 세습을 지원하며 체제보위에 적합한 인물로 양성됐다.

4. 결 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역사적 맥락으로 간주하고 세습의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백두혈통의 뿌리를 항일무장투쟁에서 찾는다. 이러한 항일무장투쟁은 군사적 기풍에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적통이며, 군 엘리트는 체제 보위의 핵심세력으로 3대 세습의 중요한 지원세력이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당국가체제로 환원과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재래식 전력의 가치 저하는 군부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이 세습승계와 당국가체제라는 특성에 주목하면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를 북한 권력의 중핵으로 볼 수 있는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와 주석단에서 차지하는 군 엘리트의 비율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 집권기 군 엘리트는 빨치산 출신을 기반으로 1961년 제4차 당 대회 이후 당정군 주요직위에서 핵심엘리트로 성장했으나, 1969년 군사모험주의로 숙청된 이후 입지가 약해졌다. 둘째, 김정일 집권기는 선군정치로 당 기능이 형해화되면서 군 엘리트가 약진했다. 셋째, 김정은 집권 이후 당 기능을 정상화하면서 군부에 대한 강제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매진했다.

반면 군 엘리트의 당 중앙위원회와 당 정치국내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구됐다. 결론적으로 군 엘리트의 위상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고 있다. 군 엘리트는 빨치산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하여 만경대혁명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특권층으로 양성

되면서 당정군 주요직위에 겸직되어 일정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19. 10. 1, 심사수정일 : 2019. 11. 11, 게재확정일 : 2019. 11. 25)

주제어 : 역사적 맥락, 빨치산, 당 정치국, 당 중앙위원회, 겸직

<참고문헌>

- 『로동신문』
『중앙일보』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9)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3)』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세종연구소, 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대』 (한울: 2007)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서울: 선인출판사, 2015)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 (2017), DOI : 10.17321/rnks.2017.20.3.003
배원달, 『북한 노동당에 관한 소고』 논문집 V, (안동대학, 1983)
브루노 부에노 데 메스키타, 알라스테어 스미스, 이미숙 역, 『독재자의 핸드북』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2012)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북한총람: 2003~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0)
레닌, 김남섭 역,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서울: 돌베개, 1992)
레닌, 쓰딸린,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3)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2)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지평, 1989 재발행)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2013), UCI : G704-000367. 2013.53.2.008
이정철, “조선로동당 제3차 당 대표자회의와 김정일 후계 체제,” 『유라시아연구』 제8권 제1호 (2011.3), DOI : 10.31203/epa.2011. 8.1.010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이종철, “선군정치하 군 엘리트 파워 고찰,” 『동아연구』 통권 60호 (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1), UCI : G704-001625. 2011.30.1.004
- 이홍석,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의 제도화를 중심으로”(국민대학교 박사논문, 2018)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1991~1993, 2008~2011.
- 통일연구원,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출판사, 2007)
- Amos Permutter and Leo Grande,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 (December, 1982)
- Milan W. Svob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A Study on Changing the Status of North Korea's 'military elit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Lee, Heung-seog

North Korea considers Kim Il-sung's armed struggle against imperial Japan as a historical context and seeks the root of the Baekdu bloodline, which it claims is the main line of descent of hereditary succession, in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As thes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are rooted in the military atmosphere, the People's Army is the historical enemy of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and the military elite is a key force in the defense of the regime and an important supporter of the third generation. However, since Kim Jong Un took power, the research has put a position on the possibility that a reduction in the value of conventional forces due to the reemergence and upgrading of nuclear missiles could lead to a weakening of the military's status, which could serve as a potential source of tension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the regime. Therefore, this paper starts from this sense of issue and looks at the proportion of military elite in the Party Political Bureau,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the President's podium, which can be viewed as the nucleus of North Korean power,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hereditary succession and the regim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ilitary elite of Kim Il Sung's reign grew from a former member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o a core elite from the main posts of the ruling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fter the fourth party congress in 1961, but its position has weakened since it was purged in 1969 due to military adventurism. Second, the military elite advanced as the party's functions were shaped by military-first politics. Third, as the party normalized its function after Kim Jong Un took power, it carried out a forced generational shift to the military and focused on develop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the military elite to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and the party's political and domestic affairs was the highest. In conclusion, the status of the military elite has been maintained even after Kim Jong Un took power. Starting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Bbal-chi-san" the military elite has been trained as a privileged clas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Mangyongdae Revolutionary Academy, holding a certain portion of its shares in the main posts of the ruling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Keywords : Historic context, Bbal-chi-san, the Political Bureau of the Part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double position